

정읍시립박물관, 스마트하게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 사업' 선정

정읍시립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관람객들에게 소장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카이브' 구축사업(사업비 2억)을 기획 공모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박물관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IT 기술 기반의 체험형 정보 제공 서비스다.

박물관 내에 설치된 구축물을 통해 관람객이 소장품과 전시품, 지역 문화유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는 미래형 박물관 전시 콘텐츠 중 하나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박물관 보유 중인 소장품과 전시품을 데이터화 하고, 지역 문화유산과의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관람객에게 소장품과 지역 문화 유산을 보다 세부적으로 감상·공유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은 물론, 정읍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립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유진섭 시장은 "최신 기술이 접목된 박물관 소장품과 정읍 문화유산의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관람객에게 새로운 전시 관람 환경을 제공하여 정읍 문화유산의 새로운 모습을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를 주제로 상설전시실을 비롯해 매년 다양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며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황희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계 코로나 극복 최선"

대학로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 애로사항 청취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황희 장관은 "코로나19로 공연업 등 문화예술 분야가 매우 심각하게 피해를 본 상황이다. 신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지로 14일 오후 공연예술의 상징적 공간인 대학로를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황 장관은 "문체부는 대면·비대면 예술을 병행 지원하고, 예술인 생계 안정과 창작 지원 등 문화예술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한 2020년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예술인권리 보장법'의 조속한 입법 등 예술계 전반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황 장관은 대학로에 있는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예술 분야 관계기관 및 공연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전기광극단 불 대표 겸 드림시어터 대표, 김홍택 극단 마이미파 대표, 배우인 길해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임정혁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허성훈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종신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그리고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황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발로 뛰는 장관'이 되겠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하는 동반자로서 많은 조언과 해안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간담회 이후 황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드림시어터 소극장으로 이동했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수도권 공연장 2.5단계 방역조치 준수 사항인 ▲출입명부 관리 여부 ▲손소독제 비치 여부 ▲환기 여부 ▲2.5단계 좌석제 운영 여부 등 방역 과정을 살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공연계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단계 한 칸 띄기·2.5단계 두 칸 띄기가 적용됐지만, 지난달 3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 이후 2단계 한 칸 띄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기·2.5단계 한 칸 띄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기가 적용되고 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황 장관은 "공연예술계의 철저한 방역 관리로 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해줄 것 부탁드린다"라고 청했다.

/뉴시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 전라북도 대표 거리극축제인 '노상놀이' 공모를 진행한다.(전북문화관광재단 공연 모습)

전북 대표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 14개 시·군 대상 16-22일까지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 전라북도 대표 거리극축제인 '노상놀이' 공모를 진행한다

'노상놀이'는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연극 및 거리극, 퍼레이드, 거리예술 등 문화예술 기반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 문화관광과 공연예술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접수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하며, 5개 시·군과 수행단체를 선정해 1개 시·군당 2,400만원을 지원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콘텐츠를 활용한 도민 및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공연으로 주말 낮 시간대 시·군별 15회 상설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적 운영과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등 지역별 관광형태와 계절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선정방법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서류심사와 제안서를 설명하는 PT심사로 이뤄지며, 오는 26일 결과를 발표한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에서 거리극 축제를 통해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비상임 이사 공모

3명 원서접수 19일까지 우편·전자우편 병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재단의 사업과 운영전반에 대해 의견을 갖고 활동할 비상임 이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예산 등 주요 사항들을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명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 2배수 이상을 전주문화재단 이사장(전주시장)에 추천하게 되며, 이사장이 후보자들 가운데 적합자를 최종 임명하게 된다.

한편 재단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재단이사 회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지난 21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따르면 비상임 이사 3명의 원서접수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접수는 우편(등기)접수와 전자우편(jjcf.run@naver.com)접수를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jjc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063-211-9275)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